



샘표 회장의 체험담

Music: 삼포로 가는 길

샘표 회장의 체험담 식초가 좋아요
♡ 식초가 좋아요...!!

박승복 씨는
'샘표식품' 회장이다.

올해 98 세의
박승복 회장은 피부가
50 대 정도로 깨끗하고
평소에 피곤을
전혀 모르고,

약 30 년간
병원에 간 일도 없고
약을 먹어본 적도 없는
건강한 체질이다.

지금도 주량이..
소주 2 병, 위 스키한 병,
고량주 한 병이다.



올해 98 세 (22 년생)
박승복 회장이
가장 많이 듣는 말은..
"녹용이나 인삼 드세요?
무엇을 드셔서
그렇게 건강하세요?"
라는 질문이다.

그의 답은 늘 같다.
"아무거나 잘 먹는다.
운동도 전혀 안 한다.
골프, 등산은 커녕
산책도 시간이 없어서
못한다."

그만큼
하루가 바쁘다.
중국, 일본 등에서 온
30~40 대 바이어들과
술로 대적해도
지지 않는다.



"노인이라고
알았다가 큰코다치지
하하하.."
하고 웃는다.

병원에 가본 기억이
약 30년 전으로
건강에 자신이 있지만
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.

사업상 술자리가
많다 보니 만성위염
위궤양에 시달렸다.

1980년 일본 출장 때
함흥 상업학교
동기였던 일본인 친구가..
"식초를 먹으면
숙취가 사라지고
피로도 없다"라고
알려줬다.



믿을 수 없어서
일본 서점에 가서
식초의 효능과
복용법에 대한 책들을
사서 읽어보고..

"아하,
바로 이거구나!"
했다.

귀국한 후
식초를
마시기 시작해서
현재까지
계속하고 있다.

3 일을 마셨더니
변비가 없어졌다.



나만 그런가
해서 주위 사람들도
마시게 했더니
모두 같았다.

한 달을
꾸준히 마시니
피곤한 것을
모를 정도가 됐고
석 달이 지나니

지긋지긋하게
따라다니던
만성 위염이 감쪽같이
없어졌다.



※ 박 회장의 식초 먹는 법..

1 회에 식초 18cc
(작은 소주잔으로
1/3 정도)에
냉수를 묽게 타서
(100~150cc)식후에
하루 3 번 마신다.

(540cc 를 하루에
세 번 나누어 마신다.)

공복에는
속이 쓰리고 소화
지장이 있으니
식후에 복용 하시길요..

냉수 대신에
토마토 주스를 타면
마시기가 쉽다.



식초는
사과식초가 좋으며,
너무 진한 식초는 피하고
흑초는 식초 성분이
35%정도로 양을
늘려 사용한다.

그리고 요즘은
청정원에서 나오는
홍초 식초도
마신다고 합니다.

박 회장은
사과식초와 흑초를
즐거 마신다.

박 회장은
식초가 피부에도 좋고
흰머리 카락도
방지해 준다고 했다.



그는
염색을 하지 않았어도
앞머리만 약간 희다.

박 회장의
기사가 알려진 후에
평소 알고 지내던
60~70 대 사람들이
만나면 대하는 태도가
싹 바뀌었다.

전에는
가벼운 목례만 했었는데
이젠 깎듯이 90 도로
허리를 굽혀 인사한다.

방송과 신문을 통해서
94 세인 것을 알았기
때문이다.



"회장님은 그렇게
나이가 많으셨어요?
제 또래로
알고 있었습시다."하고
놀랍다고 하십니다.

식초는
우리 몸을 이렇게
건강미로 변화를
준답니다.

[출처]
샘표 회장의 체험담
식초가 좋아

?좋은 글 중에서 ?





우리 벗님들~!
健康 조심하시고
親舊들 만나
茶 한잔 (소주 한잔) 나누시는
餘裕롭고 幸福한
나날 되세요~^

